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허인 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12. 03. 16 ~ 03. 19
3. 출장지: 일본 오사카
4. 출장목적: APEC 관련 국제세미나 PEO Structrue Specialists Meeting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2012.03.16	서울 → 오사카	이동	
2012.03.17~ 03.18	오사카	APEC 국제세미나 1-st International Meeting for 'Monetary Policy Regime' 토론 및 주제발표	
2012.03.19	오사카 → 서울	이동	

Ⅲ. 활동 내용

□ 3월 17일~18일 양일간 열린 PECC(Pacific Economic Cooperations Council)이 주최한 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(1st meeting on "Monetary Policy Regime")에 참여하여 토론 및 주제 발표함.

○ 제 1 세션에서 ADBI의 Dr. Peter Morgan의 "Monetary Policy Frameworks in Asia: Experience, Lessons, Issues"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함.

-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바로 잡았으며, 아시아 지역의 비전통통화정책의 필요성,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함.

- 발표자는 비전통통화정책으로서 기준이자율의 변동없이 신용을 팽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말하고 있으므로 일본이외의 국가들도 이자율 변동없는 신용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함.

- 또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전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통화정책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함.

○ 제 2 세션에서 한국과 대만의 통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, 본인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발표함.

- 발표 내용은 별첨함.

-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적정성, 통화정책의 물가관리 능력, 자본 유출관리의 필요성 및 부작용, 목표 물가지표의 변동의 이유, 한은법 개정으로 인한 금융안정 목표의 이유,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단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음.

- 금융위기 이전에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미연준과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외환위기 가능성

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받은 점 때문에 최근 다시 외환보유고를 금융위
기 이전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답함.

- 통화정책의 물가관리는 비교적 적절하게 되어 왔으나, 최근 들어 상품
가격의 변동성 증가로 물가 변동성이 커져 있다고 설명함.
- 일련의 자본유입 제한 조치들로 인해 미시적으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
및 단기외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물환 거래시 비용증가
를 경험하고 있음을 설명함.
- 목표물가지표의 변동은 있었으나, 전반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
있어서 물가관리, 가계부채, 자산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
므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음을 설명함.
-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을 지금까지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고
있었으나, 언론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발표하는 점에서 한은의 목표로
명시해 금융안정을 위해서 통화당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
있었음을 설명함.
- 아시아 외화위기 이후 자본시장에 개방에 대해서 IMF의 권고사항으로
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의 개방도를 낮추는 것이 힘들 것으
로 판단된다고 답함.

○ 점심식사 이후 세션 3과 세션 4에서 홍콩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의
통화정책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.

- 발표자료와 토론자료는 첨부함.

○ 3월 18일 오전에 세션 5에서 중국과 콜롬비아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발
표와 토론이 진행됨.

- 발표자료와 토론자료는 첨부함.

□ 아시아 각국 및 콜롬비아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, 통화정

책의 발전과정과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짐.

- 세션 6에서 발표내용을 정리했으며, 9월에 있을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함 (논의 내용은 첨부함).